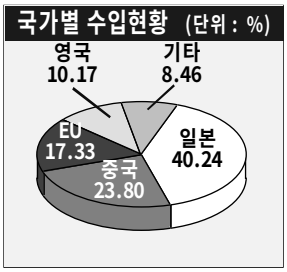
분산염료시장 쾌속“ 질주"

엔고 및 섬유산업 회복 힘입어 … 내수 중심 성장

반응성염료와 함께 국내 염료시장을 이끌고 있는 분산염료가 94년 1/4분기에도 큰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4분기 분산염료 생산량은 2885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2.4% 증가 했으며, 수입은 15.7% 증가한 1119톤(2월말 기준)으로 전체 내수시장은 41.6% 증가한 2623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분산염료의 성장은 93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폴리에스터 섬유의 중국 특수와 엔고로 인한 일본 제품의 경쟁력 약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산염료는 반응성염료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4분기 수출물량은 30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의 25%를 수출한 반응성염료에 비해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산염료 수출현황(1993) (단위 : %)

구 분	수출점유율	신장율
유 럽	15.44	35
아 시 아	66.13	2
NAFTA	12.52	115
기 타	5.8	30



수출지역은 반응성 및 산성염료가 유럽,북미 중심인 반면 분산염료는 전체수출량의 66.1%를 동남아시아 국가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성장률은 35%로 높게 나타났다.
내수시장에서의 수입제품의 점유율은 물량기준 3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제품이 물량기준 40.2%,금액기준 37.8%를 차지하고 있어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면에서 중국제품은 일본에 이어 34.9%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10.3%에 그쳐 중국제품의 저가 공세가 1/4분기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분산염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럭키,경인양행,이화산업,대영화학,대도물산 등이며 럭키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분산염료 가격은 Blue 56,Red 60 등 색이 Bright한 반면 견뢰도가 떨어지는 안트라퀴논계 제품은 5~6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색은 Dark하나 견뢰도가 높은 YEIIOW-100,RED-343,BLUE-165와 같은 아조계는 이보다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산염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BDNA,ONCB 등 중간체는 국내에서 한화,한국협화,유니온물산 등이 생산하고 있으나 가격이 중국제품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국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4/6/13>